https://doi.org/10.18856/jpn.2023.29.1.010

웹툰에 재현된 청년세대의 불안과 혐오*

- 〈취준생물〉과 〈니나의 마법서랍〉을 중심으로

이행미**

1. 웹툰에 재현된 청년세대의 삶과 정체성
2. 진정성이라는 가면과 은폐된 혐오: 〈취준생물〉
3. 일상이 된 서바이벌과 상호 돌봄의 가치: 〈니나의 마법서랍〉
4. 웹툰과 청년문화: 혐오를 생산하거나 혐오에 대응하거나

국문초록

이 글은 웹툰을 대상으로 오늘날 청년세대의 정체성과 문화가 재현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웹툰은 비교적 동시대 사회적 이슈 및 담론을 기민하게 섭취하여 담아내는 장르이다. 그런 만큼 최근 연재된 웹툰은 우리 시대 청년세대와 관련된 여러 현상을 이해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20대 현상'을 설명하는 최근의 청년담론의 논의를 참고하여 '공정하지 않다는 감각'과 그로부터 파생된 차별과 혐오를 이해하기 위해 지방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취업 문제를 다룬 서사를 살펴보았다.

〈취준생물〉은 표면적으로는 지방대생의 취업 성공이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듯하나, 사회적 성공과 내적 성장을 겹쳐 놓음으로써 타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손쉽게 해소해버리는 청년의 모습을 그린다. 진정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www.kci.go.kr

이라는 가면으로 무장한 주인공의 모습은 일상이 된 혐오를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은폐하는 현상을 징후적으로 담아낸다. 〈니나의 마법서랍〉은 생존조차 어려운 현실과 전망 없는 미래에 불안해 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세계가 주는 쾌락에 중독되는 청년을 그린다. 상호연결의 감각, 자기와 타인을 돌보는 관계성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쾌락이 되어버린 혐오와 폭력에서 벗어나는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이처럼 두 텍스트는 공통적으로는 청년의 불안과 혐오를 다루면서도 상이한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흥미로운 것은 진정성을 다루는 방식이다. 〈취준생물〉은 거짓된 진정성으로 무장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면, 〈니나의 마법서랍〉은 자기정체성은 진정성이 아니라 상호 돌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는 진정성의 상실 이후 청년세대의 미래를 짐작하게 한다. 최근 청년세대를 재현하는 두 텍스트는 주제와 전달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청년세대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웹툰, 청년세대, 지방대, 공정성, 진정성, 혐오)

1. 웹툰에 재현된 청년세대의 삶과 정체성

디지털 세계는 현실에서 소외되었던 것들을 가시화하고 현실 질서를 뒤흔들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속성은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웹툰(webtoon)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웹툰은 웹이라는 개방적인 매체 환경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개방성, 다양성, 독자와의 상호작용성이 좀 더 강화된 이야기이다. 물론 최근에는 거대 자본을 매개로 한 플랫폼의 성장으로 웹툰 제작의 기

www.kci.go.kr

업화, 상업화 흐름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콘텐츠의 획일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에 대응하여 플랫폼의 전략에 균열을 일으키고, 변화를 촉구하는 저항적 색채를 띤 텍스트 또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웹툰은 여전히 스낵 컬처 이상의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웹툰의 특성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청년세대이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오늘날 청년세대의 주축을 이루는 90년대생들은 유년기부터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세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정체성을 조형해 나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1]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비교적 스스럼없이 웹상에 게재하고,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코드, 밈을 소통의 언어로 삼아 유희를 즐긴다. 그런 점에서 청년세대가 웹툰의 생산과 소비 주체라는 말은 이들이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장르의 유행과 서사문법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웹툰의 생산과 소비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뜻이다.

웹툰과 청년을 함께 살펴보려는 시도는 2000년대 들어서 청년세대의 세계관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출현한 담론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청년세대의 감수성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던 상황을 전제로 공유한다. '88만원 세대'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청년의 상황과 전망 없는 미래를 폭로한다.[2]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출발하여 청년세대의 정체성 또는 그들의 향유하는 문화에 내포된 정서나 가치를 살펴보는 논의들이 활발히 제출되었다. 자

1) 임명묵, 『K를 생각한다(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이드웨이, 2021, 48-50쪽.
2)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2007.

www.kci.go.kr

기계발의 주체, 속물과 동물, 잉여, 생존주의적 주체 등의 표현을 통해 청년세대를 설명하고자 했다.[3]

웹툰에 나타난 청년세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크게는 다음과 같이 양분된다. 우선, 청년세대가 주인공이 되어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현하거나 폭로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텍스트에 주목한 논의들이 있다. 이승연은 2010년 전후 연재된 청년 세대 작가가 그린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불안정 문제를 다룬 세 편의 텍스트를 살펴본다. 그는 웹툰이 청년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대안담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4]

그런데 소재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보다 양적으로 꾸준히 창작되어 온 것은 대학 사회 속 청년의 삶이다.[5] 구자준에 따르면, 웹툰 속 청년세대는 경쟁과 생존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 의미와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여기에 순응하거나 불화해나가는 모습을 보이

3)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51-78쪽;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한국사회학회, 2015;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최태섭, 『잉여사회: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웅진지식하우스, 2013.

4)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문제와 재현방식: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34, 한국소통학회, 2014.

5)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인 작가가 자신의 일상을 극사실주의적으로 그린다고 밝힌 일상툰 〈대학일기〉, 캠퍼스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대학생이 겪을 만한 현실적 고민과 방황을 함께 그리고 있는 〈바른 연애 길잡이〉, 가족의 돌봄 없이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의 고통과 극복 과정을 그린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텍스트는 대학생의 현실을 다각도로 포착하여 그려낸다는 점에서 담론으로 구성되기 이전 단계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을 띠는 텍스트는 대체로 청년의 정체성과 청춘의 의미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청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후경화되거나 참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있다.

www.kci.go.kr

는 등 단일한 의미로 규정할 수 없는 양상으로 재현된다. 동시기 웹상에 유통되는 대학 관련 담론을 수용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사건과 감정을 실감 나게 그린다.[6] 김홍중은 〈미지의 세계〉를 통해 청년 여성이 헬조선으로 불리는 현실 속에서 중첩된 차원의 취약성을 지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7] 청년세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러한 논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닌 다양한 고민과 가치관,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표면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문화 또는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담아낸다고 판단되는 텍스트의 의미를 읽어내는 연구가 있다. 그중 가장 시선을 끈 것은 '병맛 서사'이다. 〈이말년씨리즈〉에서 '잉여적 감수성'을 읽어내는 김수환의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연구자들의 큰 관심이 모여졌다.[8] 이들 논의는 해석과 평가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실에서 웰메이드 서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청년의 현실을 비틀어 담아낸다는 관점을 공유한다. 한편, 이러한 서사가 청년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출되었다. 박재연은 '병맛' 담론은 세대주의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호명되는 주체는 오직 청년 남성일 뿐이라는 말한다.[9] 김건형도 잉여 세대의 자조와 도피를 통해 이해하는 독법이 청년 세대가 지닌 정치성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10] 여기에 동

6) 구자준, 「웹툰의 대학사회 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7) 김홍중,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 : 웹툰 『미지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8) 권경미, 「일상툰의 소시민성과 병맛툰의 경계 너머 내러티브」, 『인문과학』 6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288-291쪽; 김수환,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잉여에서 병맛까지」, 『탈경계인문학』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1.
9) 박재연, 「'병맛' 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작동방식」, 『대중서사연구』 51, 대중서사학회, 2019.
10) 김건형, 「일상툰의 서사 문법과 자기 재현이라는 전략—여성 일상툰의 정치미학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48, 대중서사학회, 2018, 127쪽.

www.kci.go.kr

의하면서 더하여 병맛 서사의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대항적 가치와 해방적 속성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11]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자칫 청년 문화를 분석할 수도, 분석해서도 안 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비판과 성찰의 잣대를 드리우지 못하게 한다. 병맛 서사에는 최근 인터넷에서 유희의 일종으로 확산하는 신조어와 밈에 내포된 혐오가 전유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는 대체로 2010년 전후 또는 초반에 연재되기 시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주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의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담론을 통해 해석된다. 하지만, 그때의 청년들은 현재 청년이 아니다. 청년세대의 특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면, 대부분 90년대에 출생한 2020년 전후 20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기존의 담론 틀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2010년대 초반과 2020년 전후 웹툰에 나타난 청년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도 이어진다.

최근 청년세대는 기성세대가 해석하고 주도하는 청년담론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기성담론의 틀로 설명되는 정체성과 문화는 자신들의 고통을 모르는 권위 있는 이들이 생산한 억압적인 재현 방식이라는 것이다.[12] 이러한 재현 거부의 태도와 맞물려 90년대생 필자가 스스로 자신의 세대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김내훈은 '20대 현상'에서의 20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청년세대의 보수화를 논하는 기성

11) 권경미, 「일상툰의 소시민성과 병맛툰의 경계 너머 내러티브」, 『인문과학』 6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290-291쪽.
12) 김주환,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절대적 고통 감정과 희생자-신 되기의 탈정치」, 『사회와이론』 36, 2020, 54-63쪽.

www.kci.go.kr

담론의 한계를 논한다. 그는 임명묵의 논의를 참고하여 오늘날 20대는 '공정하지 않다는 감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다.[13] 임명묵은 청년세대의 공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불안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신뢰하게 된 데서 촉발한 것으로, 현실에서의 실천적 가치나 신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14] 공정이 논리가 아닌 감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삶의 요구로 이어지기보다는 타인을 향한 응징으로 이어진다. 자기계발 신화가 무참히 깨져버린 세상에서의 자기계발은, 자기보다 덜 노력한 타인을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과정에서 자기 위안이라는 카타르시스를 분출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15]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체화된 가치로서 일상에서 실천되기보다는 사회적 정념으로 부유하면서 여러 감정과 만나 접합하여 또 다른 감정을 생산해낸다.

그런데 공정담론은 청년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공정담론을 주장하는 청년들은 대체로 서울, 좀 더 확장하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중산층에 속한 이들로 과잉 대표된 집단이다.[16] 능력주의에 대한 과도한 경도는 계층, 지역-학벌로부터 소외된 이른바 '지방대생'을 청년이 아닌 낙오자, 잉여 인간, 예비 백수로 호명한다.[17] 즉, 지방대생은

13) 김내훈, 『급진의 20대』, 서해문집, 2022, 11-52쪽. 한편, 실제 청년 담론의 추이를 귀납적으로 살펴본 논의에서도, 20대 담론이 2019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정과 청년 담론을 접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개마고원, 2022, 221-249쪽.

14) 임명묵, 『K를 생각한다(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이드웨이, 2021, 29-93쪽 참고.

15) 김내훈, 『급진의 20대』, 서해문집, 2022, 38쪽.

16) 홍덕구, 「청년운동이 말하는 '공정'과 '세대' - 2016년 이후 창립한 노동, 환경,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 8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17쪽.

17) 제정임·곽영신,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 오월의봄, 2021, 28-40쪽.

www.kci.go.kr

공정담론과 결합한 능력주의가 신봉되는 현금 사회에서 일종의 낙인으로 작동한다. 때문에 '지방대(생) 혐오'는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괄호치고, 차별과 혐오와 공모하는 등 오히려 불공정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공정담론의 민낯을 보여준다.[18] 지방대생은 청년임에도 청년이 아니라고 배제된, 지배담론 바깥에 놓여 있는 존재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공정담론의 밖에서 담론상으로 분류된 청년과는 다른 목소리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

최근 웹툰에 나타난 청년세대를 살펴보려는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대생이 주인공인 서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관심이 공정담론과 결부된 취업 문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물이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으로 등장하는 텍스트에 주목할 것이다. 흔히 지방대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면서 자기계발에 경주하기는커녕 뭐든지 적당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된다.[19] 이러한 사회학적 연구는 기안84의 〈복학왕〉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지방대 현실을 조롱하는 듯한 풍자와 과장은 청년 세대의 암울한 미래를 극대화하지만, 지방대에 대한 혐오와 편견 또한 강조된다. 그런데 이 웹툰은 최근 완결되었지만, 2014년부터 연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 병맛 서사가 유행하는 시기, 잉여적 감수성이 두드러지던 서사와 더욱 가깝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청년세대의 재현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글은 〈복학왕〉 이후 2020년 전후에 발표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최근 연재된 〈취준생물〉(2018-2020)과 〈니나의 마법서

18)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2022, 37-112쪽 참고.
19) 박경,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59(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192쪽.

www.kci.go.kr

랍〉(2021-2022)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20] 이 두 텍스트는 작금의 청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와는 다른 청년 세대의 정체성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음에 연재된 김판교의 〈취준생물〉은 제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전면화하겠다는 의도가 두드러지는 텍스트이다. 지방대 출신 주인공이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과 생각들을 그린다.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의 고용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전 시대 서사의 궤도에서 연속하거나 이탈하는 청년 재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에 연재된 랑또의 〈니나의 마법서랍〉은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중독 문제를 주제로 그려낸 이야기이다.[21] 하지만 청년의 현실이 중독에 이르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중독되는 과정이 청년의 정체성 또는 세계관 문제와 관련하여 그려진다. 이 웹툰은 스릴러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병맛 정서와 연결/변별되는 의미를 포착하게 한다.

이 두 텍스트는 공통적으로 오늘날 청년세대의 모습과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담론으로 포착되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전 시기 웹툰의 청년재현 양상과 차이를 보게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를 구명하고자 한다.

---

20) 이 글의 문제의식과 달라 분석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청년실업 문제를 다룬 웹툰 중 흥미로운 텍스트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취준진담〉은 취업을 목표로 모인 청년들의 취업스터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 여러 인물들의 개성과 사연이 나타나며 취업 상황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어바웃 블랭크〉는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인물을 통해 청년세대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려낸다.

21) 작가는 후기에서 〈니나의 마법서랍〉은 특정 중독 요소에 국한하여 구체적인 중독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이 중독에 빠져들고 벗어나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www.kci.go.kr

2. 진정성이라는 가면과 은폐된 혐오: 〈취준생물〉

〈취준생물〉은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학벌과 스펙에서 밀리는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한 28세 남성이 취업에 성공하는 이야기이다. 스펙 좋고 학벌 좋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영환이 뽑힌 이유는 자기 문제를 알고 고칠 수 있는 반성적 태도를 지녔고,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고, '진심'이 사훈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영환의 서사는 판타지에 가깝다.

언뜻 보면 이러한 결말은 취업시장에 살아남는 조건으로 좋은 학벌과 스펙만이 정당화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영환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말한다. 공부, 대학 진학, 학점과 스펙, 경쟁률이 모두 평범하지 않은 것이 평범해지는 현실에 우울함을 느낀다. 이러한 주인공의 생각은 가혹한 경쟁 속에서 구직을 준비하는 여러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취업 성공이라는 해피엔딩은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렵게 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지방대생에 부착된 사회적 전망 부재와 낙오된 이미지라는 세간의 편견을 씻어내는 듯하다.

그러나 영환을 통해 그려지고 있는 '진심'의 의미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환의 답변은 실패를 경험한 후 이를 극복하거나 장점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를테면 인턴생활에서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점을 이야기한다. 기실 이는 전형적인 답변이지만, 영환의 마음이 함께 서술됨으로써 면접을 위한 기술적인 답변이 아닌 고해성사라는 의미로 나타난다.[22] 물론 여기서 진

www.kci.go.kr

정성을 갖춘 듯한 모습은 취직시장의 논리에 순응하고 복종하기 위해 내면화된 자기계발의 의지가 발현된 양상일 뿐이다. 영환은 자기를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진단하고, 특정 목적을 향해 자기를 계발하고 경영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유명한 대기업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설정도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자아의 모습을 담아낸다.[23]

나아가 영환은 '자기계발하는 주체'라는 의미에 더해 성찰적이고 윤리적인 주체로 형상화된다. 영환의 자기계발은 신자유주의에 기민하게 적응한 테크놀로지 이상의 의미로 그려진다. 면접자 중 한 명은 영환에게 "살면서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라고 묻고, 영환은 진심으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독자들은 이러한 영환의 태도에서 솔직함, 진심, 자기를 직시하는 용기, 반성하는 자아의 모습을 읽어낸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인물의 능력이 아닌 내면적 성장을 이유로 그를 응원하게 된다. 이처럼 영환은 자신이 한 행동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물로 변화한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그간의 자기 행동의 비인간성을 자각하고, 성찰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과 같다.[24] 그런데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취업이라는 사회적 성공과 친구에게 진심어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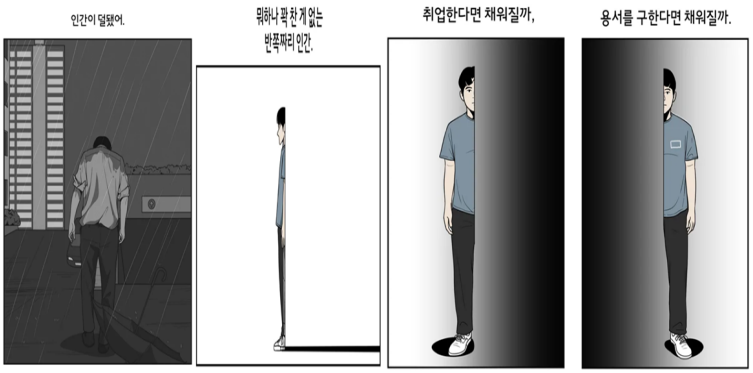
22) 영환은 질문에 답변을 한 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지 못하고 "고해성사한 느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신의 답변을 아쉬워하는 인물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지만, 영환이 진심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띤다(67화). 또한, 영환의 답변은 전형적인 내용이지만, 핵심사건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읽었던 독자에게는 울림을 줄 수 있다.

23) 영환은 서동진이 말한 자기계발 담론의 세 가지 특성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357-359쪽.

24)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67쪽.

www.kci.go.kr

과를 해 용서를 구함으로써 해결되는 내적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이한 이 두 성장을 겹쳐 읽게 함으로써 영환의 문제는 오직 이 두 부분으로만 나타난다.



〈그림1〉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영환의 내면(66화)

문제는 영환의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작위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68화 중 뒤의 4화의 내용은 인물의 64화에 걸쳐 나타난 부정적인 모습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취준생물〉의 핵심 갈등은 고등학교 시절 영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서재원을 우연히 면접장에서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 영환은 재원이 과거와 달리 자신보다 체격도 크고 스펙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 그를 더욱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재원은 복수를 위해 영환의 취업을 방해하려 한다. 서사는 두 인물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영환의 취업과 동시에 재원에게 사과하는 결과를 통해 인물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영환의 변화는 64~65화 두 화의 서사 전개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64화에서 영환과 재원의 갈등은 정점을 이룬다. 영환은 재원이 복수를

www.kci.go.kr

하게 된 이유를 듣고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과거 이야기를 들춘다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듣고서도 마지못해 "미안하긴 한데"라고 말할 뿐이다. 64화에 이르기까지 영환은 재원을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로 '우산'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려 한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재원이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를 되레 폭로하거나 조롱한다. 독자들은 이러한 영환의 모습을 보면서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런데 한 주 뒤 연재된 65화에서 영환은 그간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했다면서 갑자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치 인물의 진심과 다르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듯 말이다. 하지만 서사적 맥락과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인물의 변화에 대한 의아함은 취업준비생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바로 이어 보여줌에 따라 흐릿해진다. 형의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 세 명의 성공. 영환은 주변 인물의 성공 소식을 한꺼번에 접하게 된다. 그간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던 친구가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영환은 친밀한 사이에도 맘껏 축하하지 못하는 초라함, 혼자만 뒤떨어진 듯한 상황에서 오는 비참함을 느낀다. 그리고 독자들은 취업준비생이라면 겪음 직한 감정이라면서 강한 공감을 표한다. 이에 따라 영환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고 잘못도 많지만 인간적인 인물'로 완전히 달라진다.[25]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영환이 보여준 타인을 향한 편견과 혐오도 취업준비생이라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용인될 수 있는 문제로 재의미화된다.

영환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바닥을 치게 된 자존심을

25) 이러한 독자들의 상반된 반응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간격과, 웹툰이라는 미디어가 지닌 독서의 휘발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www.kci.go.kr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지키려 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영환의 행동과 심리는 개인적 차원의 불성실함이라든가 취업 실패가 거듭됨에 따라 생겨난 우울과 불안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심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매사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뭐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공무원은 스펙이 없는데 대기업은 갈 수 없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으면서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나 준비하는 거라고 멸시한다. 거듭되는 서류 탈락의 원인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방거점국립대인 자기와 달리 지잡대 출신인 친구가 취업의 피라미드의 아래 칸을 채워줄 것이라고 안도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 여성은 번듯한 직장을 조건으로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편견을 말하는 등 여성혐오적인 시각도 가감 없이 드러낸다.[26] 공무원, 지방대, 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혐오를 그대로 노출하는 인물이다.

---

26) 「취준생물」은 여성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평면적이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김영환의 여자친구 보라는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 시련을 주는 존재, 서재원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매개로 소비된다. 보라의 상처는 서사 내에서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화의 한 장면이다. 취업에 성공한 영환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쉬워한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끊고 친구들이 있는 취직 축하 자리로 돌아간다. 작가는 후기에서 영환의 성공과 갈등 해소, 화해 등의 비현실적인 면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사랑의 실패라는 아픔을 남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당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보라의 아픔이다.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는 모습과 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은 극적으로 대조된다.
이밖에도 이 웹툰에서 여성 인물은 서울대를 준비한다고 지방대를 졸업한 오빠를 멸시하는 여동생, 영환에게 접근해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 관련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속물스런 스터디원이 그려질 뿐이다. 서사 내 여성 인물 전체를 아울러 여성혐오적인 시각이 투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영환과 같은 최근 20대 남성의 모습으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완결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와 관련된 문제는 그 어떤 해결도 시도되지 않는다.

www.kci.go.kr

〈그림2〉 타인을 깎아내리고 허세를 부리는 영환의 모습(1화)

이처럼 김영환은 취업을 소재로 한 서사가 대체로 청년 주인공을 향해 응원과 지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달리, 독자로 하여금 취업에 성공하지 말기를 바라게 할 정도로 애정을 갖기 어려운 캐릭터, 이른바 '비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그려진다. 작가는 단점을 극대화한 인물이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환의 단점은 단지 노력을 하지 않거나 말만 번지르르 잘하는 등의 얄미운 모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에서 마치 습관과 같이 타인을 혐오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갑작스런 성공과 성장의 결말은 내면화된 혐오를 성찰하지 않고 현실에 과하게 순응하는 청년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전이라면 주인공과 대조되는 조연에 불과할 이러한 캐릭터가 동정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야말로 타인을 손쉽게 혐오하며 자기를 위무하는 현상이 단지 청년 일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결말에서 나타난 영환의 변화, 타인과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영환의 진심은 개인의 취직과 회사생활을 넘어서는 가치를 획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서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환이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설정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더욱더 흥미롭다. 영환은 스펙은 부

www.kci.go.kr

족하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인지 서류전형에 이따금 합격한다. 취업스터디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고 인정받기도 한다.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설정은 학벌사회의 위계 속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지방대생 영환이 체념하지 않고 대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환의 자기소개서는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해내는 이야기, 취업을 목표로 자기를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기술이 돋보이는 상품 그 이상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환이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설정은 역으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상상하지 못하고,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춰 자기를 상상해야 하는 고용불안의 현실과 거기에 순응하는 청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영환의 내면은 공동체 속에서의 진지한 자기 이해와 성찰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적 깊이를 지닌 것이 아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결말에서 나타나는 그의 진심(진정성)은 큰 혼란과 번민 없이 획득되고, 사회적 참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한적인 것이다. 심지어 그의 진정성은 청년의 일상이 된 혐오를 은폐하는 동시에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도덕적 위치를 점하려는 괴물적인 것이다. 자기 자신의 혐오와 정의롭지 못함을 성찰하지 못한 채, 도덕과 진정성의 가면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취준생물〉은 혐오의 대상이 된 지방대생이 표면적으로 성공하는 서사를 취하면서, 혐오의 주체가 되어버린 모습을 가리어 숨긴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텍스트라 하겠다.

3. 일상이 된 서바이벌과 상호 돌봄의 가치: 〈니나의 마법서랍〉

〈니나의 마법서랍〉의 핵심 사건은 취직을 위해 상경한 니나가 가구 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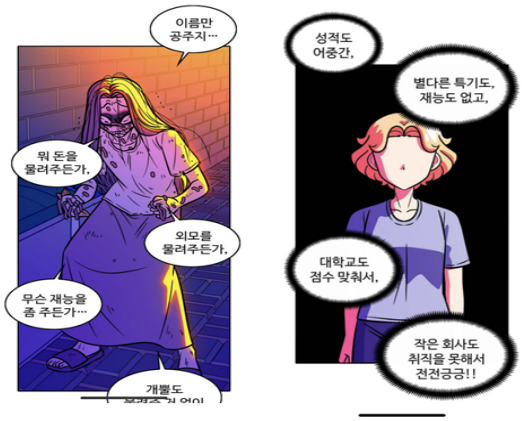
돈을 아끼기 위해 길에서 유치찬란한 분홍색 서랍을 주어오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 서랍은 세 개의 카드에 적은 소원을 가상세계에서 들어주는 마법서랍이다. 서사는 니나와 서랍의 이전 주인인 공주가 서랍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자극적이면서도 긴장감 있게 그려낸다. 니나와 공주는 공통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따른 불안, 전망이 부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서랍이 보여주는 환상에 중독된다. 서랍을 줍고 니나가 처음 적은 소원은 '취업, 돈, 연애'로,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니나와 공주는 '사회적 얼굴'[27]을 지니지 못한 존재로 그려진다. 서사 후반부에서 니나는 자신이 서랍에 중독된 이유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별다른 특기나 재능이 없고, 취직에 유리한 능력이나 학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작은 회사도 취직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면에서 니나의 얼굴은 눈코입이 없는 상태로 그려지는데, 이는 불확실한 자기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현실세계에서 공주는 배가 고파 길가의 쓰레기통을 뒤져 온몸이 오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다. 공포와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외양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주는 자신의 이름과 다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평생 노력해도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니나와 공주의 처지는 자기정체성의 확인이 자의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타인과 관계 맺으면서 생겨나는 상호

27) 여기서 '사회적 얼굴'은 박경과 김홍중의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고프만(Goffman)이 논한 사회적(공적)으로 인정된 얼굴을 뜻한다. 김홍중(2016), 김홍중,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 : 웹툰 『미지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30쪽; 박경,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59(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193쪽.

www.kci.go.kr

지지와 인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8]



〈그림3〉 현실세계에서의 공주(17화), 니나의 얼굴(99화)

현실사회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은 서랍 안 세계에서 원초적인 욕구만을 반복적으로 해소한다. 서랍은 찰나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가혹한 현실과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준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맘껏 먹고,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을 불러내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데이트하며, 백화점에서 원 없이 쇼핑한다. 그런데 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현실 논리와 규범을 위반하는 소원을 망설임 없이 적게 된다. 가령, 평소 불만을 느꼈거나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을 불러내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울분을 풀다가, 나중에는 단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사회적 위치가 높은 누군가를 불러내 폭력을 행사하며 희열을 느낀다. 이처럼 서랍 안 세계는 개인의 욕구와 충동이 그 어떤 제약 없이

28) 박경,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59(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193쪽.

www.kci.go.kr

배설될 수 있는 공간이다. 서랍 속에서는 고통을 느끼거나 절제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오직 즐거운 경험만을 할 수 있다.

서랍 속에서 인물들은 처음에는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된 듯하나, 곧 서랍 없이는 살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이른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생각했던 행위는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수렁에 빠지게 하는 매개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서랍에 중독된 이들이 서랍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에서 결렬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더 이상 환상은 현실에서의 무한경쟁에 지치거나 소외된 이들에게 위안을 주지 않는다. 현실에서의 경쟁이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한 목적 아래 철저한 자기 통제와 관리 아래 무한히 돌아간다면, 서랍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쟁은 가상세계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저지를 정도로 치열하게 나타난다. 서랍 속 환상세계는 현실보다 더욱 가혹한 서바이벌이 펼쳐지는 장이다.

〈그림4〉 서랍 속 환상 세계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는 장면(23화, 99화)

이러한 상황은 잉여스러운 존재들의 냉소가 더 이상 유희로만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기계발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낙오된 이들은

www.kci.go.kr

이제 체념과 자학의 정서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향한 증오와 혐오, 폭력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분출하는 일그러진 심리 상태를 보인다. 이는 최근 온라인 공간을 뒤덮고 있는 유희화된 혐오의 현장 그리고 그 바탕에서 유동하는 20대 청년들의 정동과 접점을 이룬다. 이처럼 〈니나의 마법서랍〉은 현실에서도 가상(온라인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서바이벌을 멈출 수 없는 청년세대의 삶을 보여준다. 게다가 가상공간에서의 서바이벌은 생존의 문제도 아닌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혹한 경쟁의 장이 된 환상세계는 공간적 배경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와의 낙차 속에서 낯설고 기괴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낙차는 이 웹툰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마법서랍과 카드만을 떼어놓고 볼 때 아동용 완구라 할 수 있고, 그림체 또한 귀여운 이미지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배경이나 그림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귀엽고 발랄하다. 그러나 스릴러적인 서사 전개, 피가 낭자한 폭력적 장면, 선정적 욕망의 적나라한 표출 등은 유아적인 이미지에 결합한 귀여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날 여지를 차단한다. 함께 있기 어려운 귀여우면서도 섬뜩한 두 이미지가 병존하는 이질적인 풍경은 불쾌하면서도 혐오스러운 감정을 낳는다. 귀여움은 통제된 관계 속에서 안전하다는 감각과 함께 구성된다.[29] 그렇다면 서랍이 주는 환상이 안전할 거라 예상되는 기대를 계속 배반하는 이러한 서사는 현실과 환상 어디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공포를 전달한다. 이와 같은 설정상의 간극은 유희 또는 냉소적 언어로 돌파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떠올리게 한다.[30]

---

29)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70쪽.

30) 랑또가 앞서 발표한 여러 텍스트가 병맛 서사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니나의 마법서랍〉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매우 흥미롭다. '병맛 서사'가 코드 파괴를 통해 낯설면서도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면, 〈니나의 마법서랍〉의 코드 파괴는 낯설고 혐오스러울 뿐이다. 전자가 우연성과 비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사라면, 후

www.kci.go.kr

한편, 이 글이 〈니나의 마법서랍〉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대 청년들의 절망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니나가 결국 서랍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서사 내에서 이러한 결단이 실행될 수 있었던 조건은 자기객관화,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하기,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나타난다. 이중에서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이해나 합리적인 방법을 우선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과 의사를 헤아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는 서랍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서랍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경험했던 기억'이다. 니나와 공주는 서랍에서 쾌락만을 좇았기에, 다시 서랍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는 서랍 안 세계에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이더라도 현실에 변화를 주지 않지만, 가해를 했던 감각과 기억이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감정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혐오와 증오가 쾌락이 아닌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니나가 서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인물의 도움 덕분이다.[31] 현재는 니나가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우월한 위치에서 니나를 일방적으로 구해주는 조력자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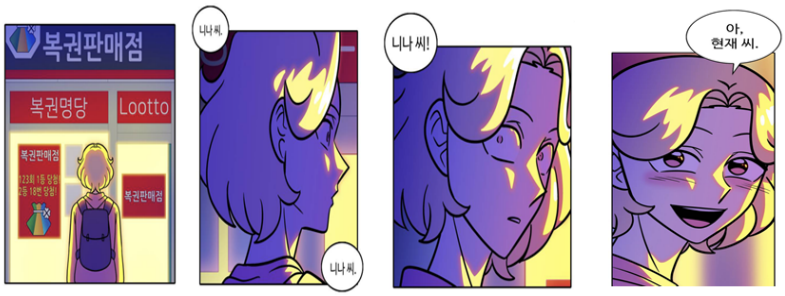
자는 우연성과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지배하는 파악할 수 없는 질서가 존재한다. 서랍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 예측하기 어려우면서도 치밀하게 짜인 서사 전개가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병맛 서사와 잉여적 감수성이 지닌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오늘날의 현실을 상기하게 한다. 작가 랑또의 의도를 짐작하긴 어려우나, 병맛 서사를 지속적으로 창작해왔던 작가의 전작의 특징이 이러한 서사를 출현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31) 니나가 서랍을 얻게 된 후 가장 처음 빈 소원은 잘 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친구를 생기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현재이다. 서사 내에서 이들의 만남은 서랍이 주는 환영에 중독되지 않았던 현재를 다시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설정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www.kci.go.kr

그는 트라우마와 불안 속에서 신경증과 불면증을 겪는 인물이다. 다른 인물들과의 정도 차는 있을지라도 현재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성을 지닌 존재이다. 문제의 직접적 원인인 서랍을 파괴하는 일은 현재와 니나가 역할을 나누어 함께 맡은 바를 수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들의 연대는 학력, 직위, 젠더, 계층 등의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들은 트라우마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사 내에서 니나가 서랍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로 나타나는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 시스템의 구축 외의 요인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32] 그것은 바로 상호 돌봄의 관계이다. 청년세대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친밀성 영역이 붕괴되어 혼자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커진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흥미롭다.



〈그림5〉 현재가 부르는 소리에 복권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니나(110화)

32)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작가의 후기를 참고할 때, '현실의 목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서사 내에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작가가 직접 말하지 않은 타인과의 관계, 상호돌봄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www.kci.go.kr

니나는 서랍을 파괴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와 취업준비생이 된다. 고시원에 살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한다. 니나의 삶은 서사 초반에 나타난 현실보다 더욱 가혹하며,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언제 취업이 될지 알 수 없는 길목에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랍에 중독되면서 생긴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기에 니나는 여전히 복권을 사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니나는 자신을 부르는 현재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림 속 니나의 눈과 표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듯, 니나가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장면은 청년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결말에서 강조되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라'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상회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현재의 삶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와 타인을 돌보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삶을 뜻한다.

이처럼 〈니나의 마법서랍〉에 그려지고 있는 청년은 생존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충동적이고 의지적이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서사는 이들에게 노력과 의지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주문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감정을 통해 현실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은 자의식과 내면의 깊이를 통해 확보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유지되고 확장된다. 이처럼 〈니나의 마법서랍〉은 작금의 청년세대의 불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불안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현상,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텍스트이다.

www.kci.go.kr

4. 웹툰과 청년문화: 혐오를 생산하거나 혐오에 대응하거나

이 글은 점차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웹툰을 대상으로 최근 청년의 정체성과 문화가 재현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웹툰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동시대 사회적 이슈 및 담론을 섭취하여 서사화하는 장르이다. 이러한 특징은 웹툰의 진보적 혹은 보수적 성격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독자의 관심을 일차원적으로 끌기 위해 당대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통념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의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웹툰의 특징을 전제하고서, 한국 사회의 청년 담론의 변화가 웹툰의 청년 재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웹툰에 재현된 청년이 오늘날 청년 문화와 정체성을 통찰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시기 이십대를 보낸 이들을 중심으로 제출되어온 청년 담론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 그리고 이것이 타자를 향한 혐오와 적대의 감정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주된 분석 대상은 〈취준생물〉과 〈니나의 마법서랍〉으로, 이 두 텍스트는 우리 시대 청년의 곤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전 세대와 변별되는 최근의 화두들을 그리고 있다.

〈취준생물〉은 표면적으로는 지방대생의 취업 성공이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듯하나, 구직이라는 커다란 과제 앞에서 타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은폐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취업 시장의 논리에 순응하는 것과 동시에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은 전체 서사의 맥락과 인물형상화를 통해 볼 때 진정한 자기 서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정상적

www.kci.go.kr

으로 간주되는 삶의 방식을 욕망하면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거나 자기계발은 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인물이다. 사회적 가치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적 차원에서의 가치조차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성찰하지 못한 채, 사회적 성공과 내적 성장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자부하는 공허한 청년을 대변한다. 또한, 청년의 일상이 된 혐오를 정당화하는 현실을 진정성이라는 가면으로 무장하여 도덕적 위치를 점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니나의 마법서랍〉에서 청년은 현실 세계에서의 생존을 포기하고 가상세계에서 원초적인 욕망을 분출하거나, 자기 자신의 이해와 편의만을 쫓으면서 요령을 부리면서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서사는 청년의 어려움과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변별되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을 제재로 그린 여러 웹툰과 변별된다. 상호연결의 감각, 나와 타인을 돌보는 관계성이 자기를 통제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도덕과 규범에서 벗어난 환상세계는 90년대생 문화를 특징짓는 온라인 공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이렇게 볼 때, 이 텍스트는 타인을 향한 증오와 혐오를 멈추고 상호돌봄과 연대의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두 텍스트는 리얼리즘과 판타지라는 상이한 장르로 분류된다. 〈취준생물〉은 현실세계의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동시에 인물의 변화를 긍정하는 서사를 부여함에 따라 현실에 대한 비판이 소거되고 되레 혐오를 은폐하고 공모하는 지점이 있다. 〈니나의 마법서랍〉은 병맛 서사의 난해하고 기묘한 코드를 부분적으로 변주하면서도, 냉소와 유희로 이어지는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 웹툰이 보여주는 환상성은 현실과 거리를 두지도, 현실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www.kci.go.kr

이 괴이한 형상은 환상세계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점에서 〈니나의 마법서랍〉은 오늘날 청년의 현실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끔 하는 텍스트이다.

오늘날 웹툰은 더 이상 하위문화의 일종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끄는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은 오히려 웹툰의 문화적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웹툰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주요 특질로 여겨져 온 독자와의 상호작용성은 최근에는 웹툰 생태계의 유희적 성격, 자본주의적 시장을 가속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독자들의 논의가 담론의 각축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공동독서의 장은[33] 인터넷 신조어, 밈의 유행 속에서 혐오표현이 유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점점 축소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무료 웹툰 플랫폼은 유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혐오적인 텍스트를 생산한다. 예를 들어, 조익상에 의해 적절히 지적되었듯, 플랫폼 성장 속에서 '여성 혐오 시스템'은 전략적으로, 보편적이고 평범한 문화로 포장되어 정착되었다.[34] 한편에서는, 이러한 서사에 대응하는 텍스트 또한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서사의 약진과 여성 캐릭터가 형상화되는 방식의 변화가 대표적인 현상이다.[35] 그런데 이러한 서

33) 김건형, 「웹툰 플랫폼의 공동독서와 그 정치미학적 가능성」, 『대중서사연구』 39, 대중서사학회, 2016. 132쪽.
34) 조익상, 「웹툰의 현재: 플랫폼 자본주의와 여성 혐오」,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218-222쪽. 이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인 〈뷰티풀 군바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구자준, 「전략적 여성혐오 서사의 등장과 그 의미 - 웹툰 〈뷰티풀 군바리〉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43, 대중서사학회, 2017.
35) 구자준, 「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 재현 —웹툰 〈단지〉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65, 한국극예술학회, 2019; 허윤,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www.kci.go.kr

사는 모두 청년세대의 문화 혹은 정체성,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청년문제 또는 청년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웹툰이 혐오를 생산하거나, 혐오에 대응하는 서사가 출현하는 배경에는 웹툰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청년세대가 주체로 존재한다. 이는 곧 웹툰이 오늘날 청년세대의 정념과 무의식의 현재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웹툰의 미래는 청년세대의 정체성과 가치의 변화 속에서 보다 생산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최근 웹툰에 재현된 청년의 모습을 통해 청년세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서사의 내용과 의미에 새겨진 흔적을 들여다보았다. 최근 청년세대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관통하는 속성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웹툰에 재현된 청년의 양상과 의미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있다. 여러 웹툰 플랫폼에 연재된 청년의 모습 전반을 살피고, 그 유형과 속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여성 간 로맨스—비완seri, 〈그녀의 심청〉(저스툰, 2017~2019)」, 『대중서사연구』 56, 대중서사학회, 2020.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니나의 마법서랍〉(네이버 웹툰, 2021.5.17.~2022.6.7.)

〈취준생물〉(다음 웹툰, 2018.7.9.~2020.1.13.)

2. 논문과 단행본

구자준,「웹툰의 대학사회 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_____,「전략적 여성혐오 서사의 등장과 그 의미 - 웹툰 〈뷰티풀 군바리〉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43, 대중서사학회, 2017, 245-276쪽.

_____,「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 재현 —웹툰 〈단지〉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한국극예술연구』 65, 한국극예술학회, 2019, 71-98쪽.

권경미,「일상툰의 소시민성과 병맛툰의 경계 너머 내러티브」,『인문과학』 6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273-300쪽.

김건형,「웹툰 플랫폼의 공동독서와 그 정치미학적 가능성」,『대중서사연구』 39, 대중서사학회, 2016, 119-169쪽.

_____,「일상툰의 서사 문법과 자기 재현이라는 전략—여성 일상툰의 정치미학을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48, 대중서사학회, 2018, 121-160쪽.

김내훈,『급진의 20대』, 서해문집, 2022.

김수환,「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잉여에서 병맛까지」,『탈경계인문학』 9,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1, 101-123쪽.

김정희원,『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2022.

김주환,「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절대적 고통 감정과 희생자-신 되기의 탈정치」,『사회와이론』 36, 2020, 1~53쪽.

김홍중,『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_____,「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한국사회학』 49(1), 한국사회학회, 2015, 179-212쪽.

_____,「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 : 웹툰『미지의 세계』를 중심으로」,『한국

www.kci.go.kr

문화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31-66쪽.
박경, 「지방 대학에 대한 낙인과 지방대생의 손상된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59(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박재연, 「'병맛' 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작동방식」, 『대중서사연구』 51, 대중서사학회, 2019, 143-180쪽.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개마고원, 2022.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문제와 재현방식: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34, 한국소통학회, 2014, 209-242쪽.
임명묵, 『K를 생각한다(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이드웨이, 2021.
제정임·곽영신,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 오월의봄, 2021.
조익상, 「웹툰의 현재: 플랫폼 자본주의와 여성 혐오」,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209-224쪽.
최태섭, 『잉여사회: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웅진지식하우스, 2013.
허윤,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여성 간 로맨스—비완seri, 〈그녀의 심청〉(저스툰, 2017~2019)」, 『대중서사연구』 56, 대중서사학회, 2020, 183-212쪽.
홍덕구, 「청년운동이 말하는 '공정'과 '세대' - 2016년 이후 창립한 노동, 환경,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 8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5-41쪽.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Anxiety and Disgust of the Young Generation Represented in Webtoons
- Focusing on 〈Story of job seekers〉 and 〈Nina's Magic Drawer〉

Lee, Haeng-Mi(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spects and meanings of the identity and culture of today's young generation being represented, targeting webtoons. Webtoon is a genre that promptly consumes and captures contemporary social issues and discourses. As such, the recently published webtoon can be a medium to understand various phenomena related to the young generation of our time. The recent youth discourse talks about the core of the '20s phenomenon' as the 'sensation of not being fair' and the discrimination and hatred derived from it. Referring to this, this article looked at texts dealing with employment issues of newcomers who graduated from local colleges.

On the surface, 〈Story of job seekers〉 seems to convey the hope that regional university students will succeed in finding a job. However, by overlapping social success and internal growth, it depicts a young man who easily resolve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nd disgust toward others. Armed with a mask of authenticity, the main character symptomatically captures the phenomenon of covering up everyday hatred in the name of morality. 〈Nina's Magic Drawer〉 depicts a young man who becomes addicted to the pleasures of the virtual world in order to escape from the reality in which even survival is difficult and anxious about the future without prospects. It presents a message that a sense of mutual connection and a relationship that cares for oneself and others can be an alternative value that overcomes fear and escapes from disgust and violence that have become pleasure.

www.kci.go.kr

As such, the two texts have in common that they deal with the anxiety and disgust of young people, while conveying different thematic consciousness. What's interesting is the way it handles authenticity. If 〈Story of job seekers〉 depicts a character who adapts to reality armed with false authenticity, 〈Nina's Magic Drawer〉 says that self-identity is formed not in authenticity but in a relationship of mutual care. This give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young generation after the loss of authenticity or seeking values they should uphold. Although the two texts that represent the recent youth generation are different in terms of subject matter and delivery method, the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llow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and worldview of today's youth generation.

(Keywords: webtoon, young generation, regional university, fairness, authenticity, disgust)

논문투고일 2023년 1월 6일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6일

www.kci.go.kr